

時論

지역생산의 역외 유출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김정완
대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지역내총생산(GRDP)은 지역 경제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산업입지 및 국토개발에 관한 정부 정책도 지역내총생산이라는 지표를 기준으로 하여 운용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국토균형개발에 역점을 둔 결과 지역내총생산을 기준으로 할 때 지역간 균형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지역내총생산이 지역에 귀착되어 실질적으로 해당 지역의 소득수준을 제고하고 지역후생에 있어 지역간 균형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지역내총생산이 지역간 균형을 이루고 있을지라도 그 과실의 역의 유출입이 심하여 해당지역의 후생에 기여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토균형개발 정책은 실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에 있어 지역내총생산은 단지 생산측면만을 나타내고 분배측면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생산과 지역분배의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산업지대에 있어 지역내총생산은 높지만 근로자들이 도시지역에 주소와 생활근거지를 두는 경우 지역생산의

과실이 도시지역으로 유출되어 생산과 분배의 괴리를 발생시킬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교육·문화·의료시설 등이 대도시에 편중되어 대도시 인구집중과 職住分離 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높다.

반약 지역생산과 지역분배의 불일치가 발생한 경우 지역생산의 유출지역(산업지역)은 지역소득·지역소비·지방세수 등 성장에 따른 과실을 향유하지 못하면서 생산활동에 따른 외부불경제(external diseconomy)만을 떠맡게 된다. 반면에 유입지역(도시지역)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혜택만을 보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지역간 자원최적배분 왜곡 혹은 지역간 경제정의 훼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지역경제를 지역생산과 지역분배로 양분한다면 지역생산은 지역내총생산, 지역분배는 예금액·가계소비액·지방세수 등의 지표로 나타낼 수 있다. 16개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하여 1996~2000 기간동안의 지역생산 지표와 지역분배 지표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 양자간에는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없었다. 이는 지역내총생산의 역의 유출입이 심하여 지역생산과 지역분배 간에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통계적으로 검증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지역생산(GRDP)의 지역간 유출입 규모를 구체적으로 추정해 볼 필요가 있

다. 각 지역별로 지역내총생산과 지역소득액으로 비교함으로써 유출입 규모를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지역소득액에 관한 공표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지역의 예금액 기준으로 하여 지역소득액을 추정할 수 있다.

지역내총생산과 지역소득액을 비교해 본 결과 지역간 지역내총생산의 역의 유출입이 심하다. 전국적으로는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지방에 있어서는 인접도에서 광역시로, 수도권에 있어서는 주변시도에서 서울시로 막대한 규모가 유출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경기도는 경제적 블랙홀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에 인접해 있는 관계로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지역생산 역의 유출을 경험하고 있으며(2001년 기준 106조903십억), 그 규모는 경기도내의 지역생산의 40%에 달한다. 더 나아가 포천시는 빈약한 지역생산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와 서울시와 인접한 관계로 연간 생산액의 69%가 역외로 유출되고 있어 심각한 지역간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지역간 지역생산의 역의 유출입을 조정할 수 있는 재정조정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교부금을 배정할 때 지역생산의 역의 유출을 반영하여 추가 지원하는 방안과 도(경기도)가 시군별로 일반재정보전금을 배정할 때도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자유기고

포천시 신동력산업 벨트화 프로젝트 제언

내촌 토이산업과 송우리 금형산업 조성 벨트화 프로젝트



김경복
경북대학교 컴퓨터응용과 교수

21세기는 세계화와 지방화의 시대, 정보화를 축으로 하는 지식기반사회, 친환경 및 문화의 시대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러한 시대조류는 지자체의 지역경제 활성화 환경을 포함한 국가산업단지 환경 전반을 크게 규정짓게 될 것이다.

지자체의 지역경제활성화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한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은 모든 지역사회 구성원간의 삶의 질이 균질적으로 향상되어야만 가능하다. 즉 어떤 지역사회의 평균소득이 증대되더라도 교육, 직업, 문화, 실질소득 등 삶의 질이 계층적·지역적으로 차이가 크다면, 장기적인 측면에서 지자체의 지속적 사회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

하는 한국사회의 선진사회 진입여부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전략적 산업에 대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특히 지자체가 기획한 전략적 핵심 동력 산업에 대한 기업투자의 활성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기업투자는 곧 안정적인 매력적인 일자리 창출을 의미한다.

이런 관점에서 정부는 지역여건에 맞는 지역혁신체계 구축과 지역혁신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자체가 지역혁신협의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는 산·학·연 협력 사업을 지원하는 지역혁신특성화사업 시행계획 공고를 한 바 있다. 지역에서 제공되는 매력적인 일자리는 지역사회의 소득과 소비를 창출시켜 지역주민의 이탈을 방지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자생력을 북돋는다. 썰렁한 지방도시를 생기 넘치는 활력의 도시로 부활시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성화된 지역대표산업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 경기북부 특히, 포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투자는 어떻게 증대시킬 수

있는가? 간단한 답이지만 지역의 정서와 문화, 기존 기업 및 신규유치 기업의 입맛에 맞는 특정 산업의 유치이다.

이 산업은 차별화정책으로 기획된 미래지향적이고 친환경적인 문화를 지닌, 차기 성장 동력 산업을 선택하여 접목시켜야 외적 투자여건이 조성되게 된다. 특히 포천시를 포함한 경기북부지역은 첨단산업이 낙후되고, 소규모 영농산업과 3D업종으로 분류되는 염색 및 피혁 산업과 휴양레저 도시로 이미지가 유착되어 있다.

따라서 종래의 포천시가 소유하던 공업단지나 영농단지과 같은 기능과 체제로서는 더 이상 경쟁력을 가지기 어렵게 되었으며, 미래지향적 산업기술 연구단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포천시는 이러한 대내외적인 이미지를 과감히 탈피하여 새로운 여건을 능동적으로 기획 수용하여, 지역 경제활성화와 국가경쟁력을 선도하는 지역 특화 기술 산업과 성장 동력 산업 분야에 대한 발굴에 모든 행정력 결집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 시대적으로 요구된다.

이를 위해 프로젝트로 구체화시킬 수 있는 산업이 내촌지역은 토이산업으로, 송우리지역은 금형산업을 조성하여 상호지원 연계가 가능한 산업을 벨트화 시키는 쌍두마차형 견인 프로젝트(안)를 제언한다.

이 글은 포천시와 관내 3개 대학이 관학 교류협력을 선언하고 지난 18일 오후 2시 포천중문의과대학교에서 개최된 제3차 실무협의회에서 발표한 제언내용이다. (편집자주)

특별기획

경찰수사권 독립에 관한 연구 ③

捜査의 概念과 性格



노영민
포천경찰서

刑事廳次는 捜査(Ermittlung)에 의해서 開始되기 때문에 수사는 형사절차의 제1단계이다. 수사의 개념에는 다음과 같이 공의 설과 협의설로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廣義說에 따르면 수사란 범죄의 유무와 범인의 체포 및 증거수집을 위한 수사기관의 활동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진계호, 형사소송법, 형출판사, 2000, 186면; 이재상, 형사소송법, 5판, 박영사, 1996, 170면; 신동운, 형사소송법 I, 개정판, 법문사, 1996, 24면; 정영석/이형국, 형사소송법, 개정판, 법문사, 356면; 高田卓爾, 注解刑事情形法(中卷), 靑林書院, 1974, 3면.)

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不起訴處分으로 종료되는 경우도 있고, 일정한 경우에는 공소제기 후에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공소유지를 위해 보강수사를 하거나 진범인이 발견되어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에 대해 공소를 취소하기 위해 일정한 수사활동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수사개념에는 이러한 모든 경우를 포괄할 수 있는 포지티브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廣義說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최근의 유력설로서 등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狹義說은 수사란 공소의 제기·유지를 위한 준비로서 범죄사실을 조사하고 범인과 증거를 발견·수집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김기두, 형사소송법, 신정신판, 박영사, 1987, 193면; 권오병, 형사소송법, 2판, 일신사, 1972, 247면; 사일고, 형사소송법, 8개판, 박영사, 1979, 225면; 차용석, '수사구조론', 월간고시, 1986.4, 21면; 井戶田侃, 刑事情形法 I, 有斐閣, 1967, 66면.)

수사와 관련된 개념들은 捜査主體의 活動, 捜査의 開始, 捜査의 時期, 捜査의 目的 등이 있다. 먼저 ① 捜査主體는 檢事와 司法警察官이다. 따라서 사인의 현행범체포행위나 조세법칙 사건에 대한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는 수사행위가 아니다. 수사는 형사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활동이다. 따라서 검사의 공소제기·불기소처분과 같은 추가기관의 처분이나 검사의 피고인신문 형사소송법 제287조, 증인신문 형사소송법 제161조의 2 제1항, 과 같은 검사나 소송당사자로서 공판절차에서 행하는 각종의 소송활동은 수사가 아니다. ② 捜査는 捜査機關이 犯罪의 嫌疑가 있다고 思料하는 때에 개시된다. 형사소송법 제195조, 따라서 수사기관의 활동이라 할지라도 수사개시 이전의 활동, 즉 내사 사법경찰관직무규칙 제20조, 경찰관의 불심검문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법사의 검시 형사소송법 제222조,는 수사가 아니다. ③ 捜査는 原則적으로 公訴提起에 대한 準備的인 것으로 주로 공소제기 전에 행하여지나 공소제기 후에 공소유지를 위한 준비로서 행하는 경우도 있다. 피고인조사·참고인조사·현장검증·의제물들의 압수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④ 捜査는 범죄의 유무와 범인의 체포 및 증거수집을 목적으로 행해진다. 소재수사·피의자신문·참고인조사·압수·수색·검증 등은 증거수집을 목적으로 한 수사이다.

공소의 提起 개념에 犯罪의 有無와 起訴·不起訴決定이 당연히 포함되고 보면 양자의 차이는 없고, 어느 견해에 의하든 공소제기 후에 공소유지를 위하여 또는 공소취소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의 활동을 수사라 파악하는 것은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한다.) 그러나 捜査는 항상 公訴提起

질적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격은 필연적으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므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수사에 관한 사법적 통제를 통해서 이를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수사에 있어서의 이념은 이러한 질적 진실발견의 이념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捜査는 捜査機關이 犯罪의 嫌疑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범죄의 혐의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또는 공소의 유지를 위한 준비로서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존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수사활동은 다음과 같이 기술성, 법률성, 절차성, 정책성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들 성격은 각각 獨立的으로 作用하는 것이 아니고 相乘作用을 통하여 制約統制되는 입체적·동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중 어느 한 면만을 부각시켜 경찰의 수사권독립을 검토할 수는 없고, 위의 모든 성격을 가장 잘 조화시킬 수 있는 각도에서 경찰의 수사권독립을 논해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수사활동의 여러 성격을 구체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공소의 提起 개념에 犯罪의 有無와 起訴·不起訴決定이 당연히 포함되고 보면 양자의 차이는 없고, 어느 견해에 의하든 공소제기 후에 공소유지를 위하여 또는 공소취소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의 활동을 수사라 파악하는 것은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한다.) 그러나 捜査는 항상 公訴提起

罪捜査는 진실된 실제형성을 위한 技術性을 가지고 있다. 즉 수사관 범인, 범죄사실, 증거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실체를 규명하기 위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범인을 검거함으로써 진실을 밝혀 나가는 기술인 것이다. (수사간부연구소, 수사권독립의 필요성과 선행과제, 1988, 22면.)

(다음호에 계속)

고객 만족 이벤트

- ★ 20만원 이용시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 ★ 50만원 이용시 3만원 상당 꽃배달 무료 이용권을 드립니다.
- ★ 100만원 이용시 5만원 상당 무료 이용권을 드립니다. (주유권증정)
- ★ 200만원 이용시 15만원 무료 이용권을 드립니다. (주유권증정)

포천을 대표하는 꽃집

늘봄 꽃 직매장

www.pocheonflower.co.kr

TEL 080-540-3681 / 031-542-3681 / 031-542-8959

FAX 031-543-1193

늘봄 꽃 농원

TEL 031-543-3681 / FAX 031-541-3683

● 국민은행 : 219-21-0414110 ● 농협 : 585-02-003557

Tip

식물관리요령

- ▶ 물주기: 표면의 분토가 마르는 것을 기준으로 흠뻑준다
- ▶ 습도: 열대·아열대 지방이 원산지이므로 온대습 70~80%
- ▶ 광선: 실내의 경우 광선이 많이 들어오는 곳에 관리
- ▶ 온도: 15°C에서 30°C내외의 생육이 활발
- ▶ 비료: 봄·가을 생육기에 희석액 월 2~3회를 준다

혼합꽃바구니

장미바구니

분홍장미바구니

죽야매

캐리비안바구니

장미혼합세트

허트바구니(대)

과일꽃바구니

100송이플러워박스

3단장미바구니

원천장미다발

원천히사탕 100%

장미100송이바구니

로맨틱바구니

포천시 소흘읍 송우6리 107-5 / 대표 강옥자